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01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3억 최고도 있었다 토요스 시장 첫 경매 다링어인 과거 단가 ... 3
2. 첫 경매 다링어 과거 4년만의 최고가 1억 1,424만엔에 낙찰 ... 4
3. 미야코시 어시장 새해 첫 업무 시작 시장 ‘양식업에도 힘’ ... 5

- 2024년 1월 5일, 2024년 다랑어경매가 시작될 예정. 아오모리현 오마산 다랑어가 12년동안 최고가. 올해의 가격은 얼마일까?
- 1월 5일, 도쿄의 토요스 시장에서 첫 다랑어경매가 개최됨.
 - 첫 다랑어 경매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경매임.
 - 아오모리 오마정은 3일 밤, 신년 첫 다랑어잡이에 나섰고, 4일 오전 10시 쯤, 100kg가 넘는 다랑어를 어획함.
 - 오마정의 다랑어는 12년 연속 최고가로 팔렸기 때문에 2024년에도 최고가로 팔릴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음.
 - 다음은 토요스 시장 첫 경매의 다랑어의 기록임:
 - 2023년 오마산 212kg 3,604만 엔 (한화 약 3억 2,846만 원)
 - 2022년 오마산 211kg 1,688만 엔 (한화 약 1억 5,384만 원)
 - 2021년 오마산 208kg 2,084만 엔 (한화 약 1억 8,993만 원)
 - 2020년 오마산 276kg 1억9,320만 엔 (한화 약 17억 6,082만 원)
 - 2019년 오마산 278kg 3억3,360만 엔 (한화 약 29억 9,358만 원)

※ 출처: 아오모리 텔레비¹⁾

1) <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70ca7bc0a25e6a2f35bd9f3b3a78ed556e69661d> ('24년 01월 04일 검색)

- 1월 5일 도쿄, 에도구의 토요스 시장에서 개최된 다랑어 첫 경매에서 238kg의 다랑어가 1억 1,424만 엔 (한화 약 10억 3,788만원)으로 매각됨.
- 오데노라 그룹이라는 회사가 4년 연속 최고가 다랑어를 낙찰받음.
 - 오데노라 그룹은 "야마유키"라는 수산 중매업과, "스시 긴자 오노데라" 등을 운영중에 있음.
- 이번 가격(1억 1,424만엔)은 기록을 시작한 1999년 이래로 4번째로 높은 가격이었음.
- 1억 9,320만엔을 낙찰 받은 2020년 이후로, 4년만에 낙찰당한 최고가임.
 -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엔 2,084만엔, 2022년엔 1,688만엔, 그리고 2023년엔 3,604만엔으로 저가로 낙찰당함.
- 야마유키의 대표, 야마구치 유키타카 (61살)는 "코로나19가 끝나고, 외국인 방문객이 일본의 다랑어음식을 먹기 위해 찾아온다"며, 외식업계의 회복을 최고가 낙찰 이유로 말함.

※ 출처: 스포츠 호치²⁾

2) <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19bd3d57e54b08cfb69d5dd4710cb4d208d5fbc3> ('24년 01월 08일 검색)

3 미야코시 어시장 새해 첫 업무 시작, 시장 “양식업에도 힘.”

□ 미야코시의 어시장이 2024년 1월 4일 새해 처음으로 업무를 시작, 첫 판매식이 진행됨.

* 미야코시: 일본 동북부인 이와테현에 있는 도시

- 첫 판매식에는 시내의 어업관계자들이 모여, 지속해서 어종이 잡히지 않아 저조한 수산업의 부활을 빌었음.
 - 해수온 상승 및 방사능 처리수 방출의 영향으로 어업활동이 더욱 힘들어졌음.
 - 미야코시의 어획량은 작년대비 77.5%인 1억1100톤이 감소.
 - 하지만, 고등어나 오징어의 물가가 올라 판매금액은 112.5% 증가한 42억 6200만엔 (한화 약 388억원)이었음.
- 첫 판매식에 참여한 미야코시의 야마모토 마사노리 시장은 어업을 위해 연어나 꽂치가 되돌아오길 빌며, 양식업에도 힘을 보태고 싶다 말함.
 - 이와테현은 주로 연어와 꽂치어업을 하던 지역임.

※ 출처: IBC 이와테 방송³⁾

3) <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8be37aeab74ac0959ad80a1d96f08d5ba49262bd> ('24년 01월 04일 검색)